

01 교회소식

사랑의 주님을 전하는 행복

여선교회 주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와 파키스탄 선교 출장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02 생명의 말씀\_ 십계명 시리즈 8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남의 물건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재정을 임의로 쓰거나 십 일조를 드리지 않는 등 영적 의미의 도적질도 있음을 알아 한다.

03 기획특집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불같이 뜨겁게...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때 더 강력히 나타나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

04 간증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체험했어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인도 조지 로버트 목사와 아버지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지려나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662호 2014년 11월 3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포근한 주님 사랑으로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 ‘제17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열려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는 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매월 생활보조비 및 쌀과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매년 맛있는 김장을 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포근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여선교회총연합회(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 주최로 있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대로 맑고 포근한 날씨 가운데 진행돼 행사에 참여한 여선교회 회원들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여선교회총연합회 회장 조현숙 권사는 “김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정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랑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는 교회 내 구제 가정과 신대방2동 주민센터, 구로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 1,149가구에 전달됐다.

매년 김장김치를 전달받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관계자는 “소외된 계층을 항상 잊지 않고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구로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잊지 않고 챙겨 주셔서 장애인들이 올 겨울도 따뜻하게 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사랑과 정성으로 버무린 김치 맛 좀 보실래요?” 여선교회 회원들의 행복한 섬김으로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 작은 사랑도 나누면 나눌수록 자꾸만 더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파키스탄과 중동에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전 세계 영혼 구원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11월 20일부터 21박 22일 일정으로 파키스탄과 중동에 선교팀을 보냈다.

11월 22일에 열린 만민 자·협력교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 사진)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갈 6:7)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악으로 심을 때 저주와 사망의 열매를, 선으로 심을 때 축복을 거둔 증거를 성경상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어떻게 심어서 말씀을 풀이받고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때에 큰 호응이 있었고, 참석자들은 깊은 영적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다.

11월 23일 주일에는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호르 영생교회(담임 이삭TV 사장 안와과잘 목사)에서 권능의 손수건 집회(아래 사진)가 있었다.

강사 길태식 목사는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고전 2:6-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손수건 집회를 가졌다. 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이삭TV를 통해 함께하는 파키스탄 전국의 시청자들을 위해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

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환자기도를 해 주었다.

이 밖에도 선교팀은 타타 지역과 카라치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가졌고, 남은 중동 지역, 스리랑카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 일정을 마치고 오는 12월 11일에 입국한다.

한편, 우리 교회 선교팀은 ‘2000 이재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이후 파키스탄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통해 활발한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파키스탄과 중동 지역에 송출되는 이삭TV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권능의 역사를 방송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출 20:15)

#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니다. 그런데 빌린 후에 다 써버리니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혹여 돌려준다 해도 그 물건을 썼으니 그만큼 상대에게 손실을 입히게 된 것이지요. 정녕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의 것을 취했을 때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훔치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해도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을 때는 도적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직위나 권세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경우나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도 선한 사람은 반드시 양심의 가책을 받지요. 비록 상대의 것을 몰래 훔쳐온 것이 아니라 해도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이 아닌 것을 취했기에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도적질에 해당됩니다.

## 2.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영적인 도적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는 구원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는 재정을 도적질함으로 결국 사단의 역사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회개의 영도 받지 못한 채 자살해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재정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한다 해도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혹여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아 당장 징계를 받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공의 가운데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 무서운 일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가 되어 7년 환난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현금을 직접 도적질하지 않는다 해도 성물이나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비나 찬조는 물론, 교회 사무용품이나 문구류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재정으로 구입한 물품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낭비하는 것, 또 남은 재정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로 교회 전화나 비품을 사용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밖에도 어린 아이들이 현금봉투나 주보, 교회신문 등을 장난으로 접거나 찢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 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십일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계하십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하며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증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십일조를 안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므로 저주가 임합니다(말 3:8-9). 십일조를 안 드려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송사해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못하므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며 시험, 환난, 질병 등을 겪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월급만이 아니라 전체 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업으로 얻은 수입, 혹은 용돈이나 선물로 받은 것도 수입이므로 그 십분의 일을 계산해서 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수적인 수입은 다 빼고 급여만 계산하거나 급여에서도 여러 지출을 제하고 남은 수입에서만 십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십일조라는 명목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교비나 구제 등으로 나눠서 드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들은 결국 십일조를 도적질한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많입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귀한 직분을 받아 상급을 쌓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지키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지요. 또 어려움이나 연단 중에도 합력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매 주일 감사예물을 드리고 절기 때나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구별해 드리지요.

이것은 이치적으로도 당연한 일입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은혜를 입으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답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매주 지켜 주신 은혜와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감사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며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것은 곧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 정욕으로 마음을 채웠다는 말입니다(마 6:24). 초신자라면 이해가 되지 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라면 믿음이 오히려 퇴보하기 쉽지요. 그러니 마땅히 드러야 할 헌물을 도적질한다면 결국 구원과도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형편과 중심을 아시기에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막 12:41-44).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와 믿음의 향을 받기 원하시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큰 축복과 감사의 조건들로 돌려받게 됩니다. 곧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며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영적인 도적질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마치 점쟁이처럼 남의 앞일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자기 생각 속에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다.”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악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택해 하나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지키고 혹여라도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밖에도 도적질에는 샅을 받고도 일을 잘 하지 않거나, 게을러서 직분이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지기로 약속된 시간을 임의로 사용해 손해를 입히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사사로운 마음과 탐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 가운데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함으로 진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도적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매우 불쾌하고 억울해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거나 몰래 취하는 것이 도적질이며, 이는 작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도적질을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도 죄라고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도 못하지요. 과연 십계명 중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 1. 남의 것을 취하는 육적인 도적질

혹여 일상생활 중에 주인의 허락 없이 물건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나요? 서로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인 경우나 값싸고 사소한 물건인 경우에 굳이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부득이한 상황에 빌렸다가도 즉시 돌려주지 않지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엄밀히 진리로 분별한다면 물질적인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물건도, 또 절친한 사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썼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쉽게 “달라.” 하거나 “빌려 달라.” 합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9:00 PM 11:00 PM 11:00 PM 7:00 PM 8:00 PM 9:00 PM 4:00 PM 3:00 PM
주일 저녁예배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금요철야예배	
수요예배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찬양예배 [이동부]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셨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나온다. 특히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해 힘써 결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제자가 삼천 명이나 늘어나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권능을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대해 살펴본다.

## 01. 비둘기 같이 온유한 성령의 역사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평안을 주신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16)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장차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가 곧 그리스도임을 알려 주셨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장면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실제로 비둘기가 내려와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처럼 성령이 온유하게 임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령은 사람의 성품이나 상황에 따라 역사하신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정신 질환, 사업문제 등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해 주시므로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평안을 주신다.

## 02. 시원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통회자복함으로 치료의 확신이 온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2)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를 나타낸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힘 있게 휘몰아쳤다는 것이며, 전 세계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통회자복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가볍다. 마치 박하사탕을 먹을 때처럼 몸이 시원해졌다거나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치료의 확신이 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속성과 능력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내신 것을 알 수 있다(출

14:21 ; 왕상 18:45 ; 호 13:15). 예수님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며 성령의 하는 일을 바람에 비유하셨다(요 3:8).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 소리라든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라든지 그런 현상을 통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성령도 그 자체는 만져지지 않지만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와 권능의 역사를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 03.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질병의 근원, 어둠의 세력, 마음의 죄성을 태운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행 2:3)

성경은 성령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종종 ‘불’로 상징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눅 3:16)라고 했다.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했는데, 우리가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불을 받는 것이 곧 성령의 불세례이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온몸이 뜨거워지고 질병의 근원이 태워지며 어둠의 세력도 그 힘을 잃고 물러간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성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성령의 권능 앞에서는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없고 어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먼저 죄의 담을 털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이다(출 15:26).

## 04. 희한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 무안단물, 권능의 손수건, 재창조의 권능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행 19:11-12)

성경을 보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권능을 받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걷고 뛰게 했다(행 3:1-10, 14:8-10).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치료되고 악귀가 나가는 희한한 일도 나타났다(행 19:11-12).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을 체험케 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 14:12)라고 말씀하셨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운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끊임없이 확증해 보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18-22
- 선 [2013]
- 믿음의 분량 21-25
- 축복 6
- 창세기 강해 89-93
- 지옥9-13
- 일곱교회 16-20
- 인자의 살과 피
- 요한계시록 강해 43-44

**GCN TV설교**

- 사랑의 힘으로 (이수진 목사)
- 이 사랑 잊지 말기를 1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23 / 말씀 2 (이희선 목사)
- 세상을 꿈자 2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3 / 열재앙 3 (정구영 목사)
- 그릇 준비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창조와 과학 1
- 내 마음의 찬양 2
- 옛날 옛적에 3
- 흥겨운 소리 8
- 모두 드려요 16
- 만민 지킴이 4
- 즐거운 요리 20
- 뷰티풀 라이프 11
- 알콩달콩 여여쁜 울릉 15
- English 4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7
- 플로리스트 7

**해외성회 및 교육**

- 회상 1
- 러시아 연합대성회 1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3-4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방송 A/S 문의

저는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스무 살 때 대학 교수님의 전도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어머니가 깨끗이 치료받는 체험을 통해 온 가족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목회자의 딸인 프리실라 나바로지 오웬과 결혼하게 됐지요.

장인 오웬 로버트 목사님(선한 사마리아인 교단 총회장)은 인도 기독교계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로서, 2002년에 개최된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 조직위원장이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카툰야 대학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도로 지원했는데, 인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성회로 연 인원 300만 명이 이상이 운집했지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아주 명쾌했고, 단 위에서 해 주시는 전체 기도로 수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회는 인도 기독교 부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오웬 로버트 목사님은 인도 기독교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타밀나두 주 오순절 교단 및 목회자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해 기독교 부흥에 힘쓰셨지요.

저는 2003년에 이재록 목사님의 대표적 인 설교 '십자가의 도'를 타밀어로 더빙했습니다. 이 설교는 인도 SS뮤직 TV에 방송됐지요. 또한 이 목사님의 간증수기인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타밀어 판을 감수했습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조지 로버트 목사 (52세, 인도 프레이즈 타워시티 교회 당회장)



▲ 해수어와 담수어가 공존하는 우리 교회 '무안단물 수족관' 앞에서 아내 프리실라 나바로지 오웬과 함께했다.

깨우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프레이즈 타워시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분야에 봉사하고 있었는데, 장인 오웬 로버트 목사님은 제가 목회자가 되어 사역에 힘이 되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에 오웬 로버트 목사님은 소천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만민중앙교회 GCN 방송(www.gcntv.org)의 이재록 목사님 설교와 양질의 프로

그램들을 통해 영적인 공급을 받던 저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직접 뵈고 싶었습니다.

2014년 10월, 마침내 만민중앙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은 매우 겸손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셨지요. 그분의 마음에는 오직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십견을 치료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왼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고 뒤로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고통이 심할 때는 차라리 왼팔이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지요. 유명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치료도 받아보고, 침도 맞으며 여러 약을 복용했지만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립 32주년 기념일 다음날, 해외에서 온 많은 분과 함께 이 목사님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한 기적의 현장,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일곱 번 침수한 후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곧바로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저는 귀국 후 이재록 목사님의 사랑과 섬김을 떠올리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생명력 넘치는 설교를 청취하고, 이 외에도 많은 설교 자료를 한정회 목사님(인도 첸나이만민교회)을 통해 공급받아 활용하고 있지요. 이처럼 귀한 복음을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아버지의 구원과 잉태의 축복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려나 성도 (29세, 중국 1교구)



아버지가 성격이 강하고 혈기가 많아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실 때면 참을 수 없었고, 아버지가 미워 집을 떠나고 싶었지요. 그러던 2007년 1월, 저는 한국에 와서 어머니 말씀대로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슬프고 돈 버는 일이 급하다 보니 교회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얼마 후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저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당뇨병에 합병증까지 온 아버지의 병세 악화를 보며 회개할 수 있었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12년, 어머니는 어찌하면 아버지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눈물로 대신 회개하며 섬기셨지요. 이런 상황이 되니 저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됐고 결국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뇨로 인해 시력을 상실한 아버지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볼 수 있게 됐고, 예배에 참석하며 믿음을 갖게 돼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2013년 2월, 아버지는 소천

하시기 전에 꿈에서 넓은 풀밭과 꽃밭을 보았는데 힘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차에 앉아 어딘가를 계속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잠시 후 열쇠 두 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지요. 그리고는 “이제 됐다!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린 아이같이 기뻐하시더니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천국이 확실히 마음에 믿어졌고, 제게도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아이를 갖고자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당회장님께 설 인사를 드리고 축복기도를 받은 뒤 바로 임신이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회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안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민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31)552-7397, 010-8163-153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일산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